

■조계종 포교원 '사이버 포교...' 연찬회, 진단과 제안

“포교 콘텐츠 개발에 미래 걸자”

전문가 양성 시급한 과제...종단 차원 지원기구도 필요

불교계 인터넷 포교의 현실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는 '구조성' '일회성'이 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터넷 포교, 사이버 포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조계종이 4대 종책 가운데 하나로 정착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성과는 미비하다.

이런 차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제1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고 '사이버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논한 것은 획기적인 타개책에는 못 미치지만 사이버 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이자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4월 12일 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종책연찬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구형 겸임교수(동국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쇄를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TV 등 막강한 미디어를 가지고 어느 종교도 종교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산 속에 있는 사찰

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TV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다가올 때 어느 종교보다 더 쉽고 가깝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총괄팀장(현대불교 불교정보센터) 역시 "불교"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도 포교할 수 있는 방법과 젊은 세대를 위한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와 그 방향성'을 발표한 조수동 교수(대구한의대)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령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선거공약에서부터 취임 이후 주요종책기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터넷 포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임기 후 3년이 되

는 올해까지 이렇다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이버 사업단 및 사이버 위원회 구성'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한 인터넷 세대 조직 구축' 'DMB 대응 및 불교 콘텐츠 공유 및 이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불교사이트 이용자의 실행 활동'에 대해 발표한 박수호 박사(중앙승가대 강사)는 "중앙 차원의 관리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 능하며 중앙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중심의 접근을 고려해야 하고 정보결핍위원회 등을 통해 오류·외국 불교정보를 걷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 스님(포교연구실장)은 "포교원의 종책 비전 등에서도 사이버 미디어 포교가 절실하다고 말해왔던 만큼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대책이 실현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능인선원 중창불사 회향식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오른쪽 10번째)과 내외 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정혜사 능인선원 70년만에 중창 낙성

덕송총림, 선방 30평 요사채 40평 정비

만공스님 134돌 탄신다례도

근세 한국불교의 최초 선원이자 경허·만공 스님이 주석하며 선풍을 떨쳤던 덕송총림 능인선원이 2년여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정혜사 선방 30평과 요사채 40평을 중수했고, 육실 화장실 식당 등을 새로 준공했으며, 대대적인 조경공사로 경내를 더욱 단아하게 정비했다. 1895년 개원한 능인선원은 1938년 만공스님이 1차 중수했고, 근 70년만에 중창

불사를 한 것이다.

만공 스님 탄신 134주년을 맞아 다례와 함께 봉행된 4월15일 능인선원 중창불사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도영·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종회의원들, 전국 선원장들과 수덕사 유나 섭정·법주사 회주 혜정·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등 문도회수장들과 박종순 예산군수 등 5백여 명이 동참했다.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유나 섭

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건물불사가 아니라 능인선원이 갖는 정신을 기리고 뜻을 잘 따르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운수남자가 구름처럼 모여 도인이 많이 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에 앞서 주지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0월 표면적인 준공을 하고 수좌 설정스님과 선덕 법안 스님을 중심으로 제방수좌들과 동안거를 마치고 오늘 공식적인 회향의식을 마련했다"며 "각각의 관심과 협조로 요사채를 중수했고 육실 화장실 식당 등을 새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함주 스님(법주사 총지선원장)도 축사를 통해 새로 마련된 도량에서 수선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기쁨과 나눔의 등' 세상 밝힌다

22일 서울시청앞 광장서 점등식

올해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는 시청 앞 점등식 및 연등음악회가 4월 22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기쁨과 나눔의 등'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5000여명의 불자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연등음악회는 시청 앞 점등식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다.

연등음악회에는 장사의, 신하씨 등을 비롯해 사물놀이의 대가인 김덕수씨, 연등축제 음악인 '연등 들어 밝히자'를 부른 김현성씨, '나눔과 기쁨'을 부른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대동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종로와 세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3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부처님오신 날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 불자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로 나눔사랑 헌혈 캠페인이 펼쳐진다.

남동우 기자

통신통합사업 실시

조계종, 네트워크 강화

조계종이 통신통합(총무원-사찰간 유선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종단소속 전체 사찰에 필요한 안내 및 공지사항을 일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주요사찰(본사, 직영·특별분담금 사찰) 내 전화 구축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연간 5~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올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 사업의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한편, 단체들은 15일 두 차례 논평을 발표. 조계종 자정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불국사 팔프연습장 문제는 사과 차원이 아니라 관련 사회법과 종헌 증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의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객관적 조사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관련된 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식 먼저 바뀌어...각계 요구 이러한 자정 흐름과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계사 율원장 철우 스님은 "수승한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최근의 사태는 스님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전면적의 식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윤원철 교수는 "이런 일을 계기로 불교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깊은 성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원장과 법률사무소 <신영>의 김성구 대표변호사는 "신도가 사찰운영에 참여해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도 받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무관 스님은 "지금의 말 그대로 철저한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님들의 의식변화, 종단관리시스템의 마련, 본말사 감사기능 확대 등의 총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교단 내부의 반성을 바탕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자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21호 14면 송산노인복지회관 기사 중 '의정부 불암사 주지'를 '남양주 불암사 회주 임명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군종특별교구법 공포...설치위 구성 착수

6월말 교구출범 될 듯

조계종은 군종특별교구법을 4월 8일 공포하고 군종특별교구 출범을 위한 군종특별교구 설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교원장으로 하며, 조계종 군불교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설치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군종특별교구장 추천 및 심의, 내규 정

불자대상 공모

봉축법요식때 시상

조계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49년 '불자대상'을 공모한다.

불자대상 자격은 ▲불법홍포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의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 발전 등에 공로가 큰 자이다.

추천을 원하는 조계종 중앙총무원 부서장, 조계종 소속 사찰 주지 스님(말사의 경우 교구본사의 동의 를 받아야 함), 조계종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포교원의 동의 를 받아야 함)는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류를 첨부해 총무원 총무부(전송 02-720-3305)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5월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태·민·안·평·화·통·일

관악산 관음사

관음보살 조성 회향 및 산사음악회

귀의삼보하유고
 신라말엽인 서기 1895년(진성여왕 9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비보사찰로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사부대중의 숙원이었던 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 그 회향식을 봉대함에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하오니 유연 무연을 초월 동참하시어 선연 작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5년 5월 1일 일요일 (음. 3. 23)
 ● 점안식 및 육법공양 - 오전 10시 30분 ● 산사음악회 - 오후 1시

● 장 소 : 천년고찰 관음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 사 회 : 김병조

● 출연진 : 송대관, 김성환, 장미화, 배일호, 머루와다래, 이자연, 추가은, 김명순과 국악한마당, 관음사합창단(지휘 : 이동원 / 단장 : 김영애) 관음사물놀이(지도 : 국악인 이재화 / 단장 : 이순라)

● 관세음보살님 봉축등 접수 받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공연기획 : 아미타예술공연단
 ● 문 의 : 02)582-8609, 581-8609 www.kwaneumsa.net